

전북 교통카드시스템 관리업체 대표 ‘버스조합에 리베이트 제공’ 폭로

“보수 비용 올려주고 매달 100만원씩 입금 요구 수용”

전북지역 버스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한 업체의 대표가 전북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에 수년간 뒷돈을 제공해 왔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교통카드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대표 A씨는 15일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버스는 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슈퍼갑질을 일삼아 교통카드시스템 보수 관리 계약 유지를 위해 수년간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부산지역 한 교통카드 업체와 유지보수 담당 계약을 체결, 부산의 업체가 전북지역 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과 전산 등을 담당하고 A씨의 업체는 점검 및 보수를 맡아 매달 1300만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받았다. 계약 초기부터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턱없이 적은 유지보수비에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버스조합 관계자와 접촉해 유지보수 비용 인상에 도움을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버스조합은 교통카드 업체와 논의를 거쳐 지난 2011년부터 A씨 업체에 지급되는 유지보수 비용을 1650

만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버스조합으로 흘러들어간 뒷돈은 여기서부터 불거졌다. 버스조합은 A씨의 업체에 유지보수 비용을 인상하는데 도움을 준 댓가로 매달 10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합의내용을 외부에 유출해 버스조합이 피해를 입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까지 삽입했다. A씨는 “버스조합과 합의를 통해 2011년부터 27개월 동안 2700만원의 현금을 버스조합이 지정장한 계좌에 입금했고, 이를 통해 버스조합이 받은 돈을 회식비와 여행경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버스조합에 새로운 전무

가 취임하면서 2013년 5월부터 버스조합에 입금이 중단된 후 불연 입장을 바꿔 ‘지난해 12월까지 입금하지 않은 3200만원을 일시불로 입금하라’는 통보를 해왔다며 “영세한 업체에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일시불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요구하는 버스조합의 행태에 분통이 터져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간의 일을 털어놓게 됐다”고 말했다. 버스조합 관계자는 “A씨의 업체에서 상당기간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A씨로부터 받은 돈도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회식비나 복리후생비, 시스템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노영기자



하얗게 눈 덮인 시가지 16일 익산지역의 적설량이 7cm를 기록한 가운데 송학동의 주택가가 지난 밤 내린 눈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다.

‘독감환자 급증’ 마스크 판매 ‘불티’

G마켓, 전년 대비 5% 증가

신종 인플루엔자로 알려진 A형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세정제 등 관련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1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A형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41.3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독감 유행주의보 기준의 약 3.7배에 달하는 수치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인플루엔자 환

자 수가 이달 중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오는 4월까지도 독감이 지속적으로 유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꽃샘추위에 독감 환자까지 크게 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마스크 등 독감 예방용품 판매가 급증했다. 실제 G마켓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쿠팡몰입기는 전년 동기 대비 227% 판매가 급증했다. 마스크·환사용품도 5%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가 증가했다. 또 유아마스크와 음이온식 제균기는 각각 28%, 637%로 전년 동기 대비 판

매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옥션에서는 황사·독감 마스크, 공기청정기 판매율이 각각 20%, 71% 증가했다. 독감에 좋은 꿀과 공기정화 식품 판매율도 증가했다. 로얄제리·수입꿀은 17%, 공기정화식물은 26% 판매가 늘었다. 11번가에서도 마스크 판매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목을 보호하기 위한 용품 판매도 증가했다. 넥 워머, 목도리 및 스킨프 판매율은 전년 동기 대비 34%, 69% 올랐다. /이노영 기자

전주시, 겨울철 포트홀 보수 총력

주야간 도로 순찰 강화

전주시가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파손된 도로의 포트홀 보수·보강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달 내린 폭설과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관내에 포트홀(Pothole, 아스팔트 포장에 국부적으로 발생한 작은 구멍)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포트홀 보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신속한 포트홀 정비를 위해 4인 6개조로 총 24명이 주야간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보수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고 있다. 특히 노후포장구간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재포장을 시행하는 등 도로

보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포트홀은 아스팔트 포장층새로 재설을 위한 열화갑층이나 빗물이 스며들어 아스팔트의 결합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반복되는 차량 하중 등으로 인해 부분적인 패임 현상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주로 동절기나 장마철에 발생해 차량패손 및 교통사고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전주시 도로화현과 관계자는 “포트홀에 대한 순찰과 보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동절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포트홀 정비 전담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포트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포트홀이 발견되면 즉시 12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기자

덕진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화재 주의 당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유우종)는 최근 쓰레기 및 논·밭두렁 잡초를 소각하기 위해 피운 불씨로 인한 화재가 급증, 봄철 화재 위험을 경고했다. 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완주군 운주면에서 저녁 7시에 쓰레기 소각 중 인근 컨테이너에 불씨가 옮겨 붙어 2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같은 날 정오에 삼례읍 석전마을에서도 논두렁 소각 중 불티가 날리면서 인근 묘목 50주 등이 소실됐다. /이노영 기자

이번 화재는 인근 주민과 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자칫 소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덕진소방서 관계자는 “이달 중 발생한 14건의 화재 중 13건이 쓰레기 소각 등 실화로 인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2500여 만원에 달한다”며 “건조한 봄철에 소각행위는 대령한 불로 번질 위험이 크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노영 기자

도내 곳곳 눈 ‘빙판길’ ... 교통사고 잇따라

전북지역 도로 곳곳이 밤새 내린 눈에 얼어붙어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16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적설량은 익산 7.5cm, 임실 7cm, 정읍 6.5cm, 고창·부안·군산·진안 5.5cm 등을 기록했다. 밤새 내린 눈이 영하의 날씨에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박용주기자

물차가 앞서가던 시외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일대는 한 시간 넘게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다. /박용주기자

종교시설 골라 턴 30대 ‘덜미’

부안경찰서는 16일 종교시설만 골라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임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50분께 부안군의 한 종교 생활관 2층에 침입, 현금 50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날까지 전북과 전남, 충남지역 종교시설을 뒤흔다며 20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총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노영 기자

이날 새벽 3시40분께 김제시 백구면의 한 도로에서 김모(65)씨가 몰던 25t 화물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5m 아래 논두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어 오전 7시10분께 정읍시 갑곡면 계룡리에서도 김모(46)씨의 1t 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뒤따라오던 차량 3대가 연달아 추돌했다. 오전 9시30분께는 국도 전주군산간 동차도로 김제 백구 방면에서 1.5t 화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